

S&P, 브라질 신용등급 하향 조정

□ 브라질 신용등급 B+로 1단계 하향 조정

- 7월 2일(현지시간) S&P는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BB-에서 B+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, 향후 전망(outlook)도 '부정적'으로 유지함.
- 지난 6월 20일 Moody's는 현재 'B1'인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'안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하향 조정했으며, Fitch도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'BB-'에서 'B+'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.
- S&P는 브라질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사유로 헤알화 폭락(연초대비 약 1/5 하락)으로 인한 공공부채 증가를 지적하고 있음.
- S&P는 브라질 공공부채의 약 40%인 1,320억 달러가 달러화와 연동되어 있으며, 최근 헤알화 폭락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지난해 GDP의 60%에서 금년 말에는 GDP의 70%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음.

□ 최근 금융불안 원인

- 최근 브라질 금융불안 원인은 이른바 '롤라효과'에 기인하고 있음. 좌파정당인 노동자당(PT)의 대선 후보인 롤라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향후 브라질 경제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고, 이러한 신뢰의 상실이 환율폭등, 주가 및 국채가격 하락 등 금융불안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.

-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룰라가 당선되어 긴축정책 기조를 포기할 경우, 이미 막대한 공공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브라질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임.
-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환율폭등, 주가 및 국채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자금조달비용 증가,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브라질 정부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브라질의 국채는 브라질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(B)인 베네수엘라 국채보다 수익률이 5% 포인트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.

□ 향후 전망

- 브라질은 현재의 금융불안이 금융위기로 발전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.
- 그러나 브라질의 최근 금융불안 원인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이른바 '룰라효과'라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. 따라서 10월 6일 대선까지 룰라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- 그러나 현재 40%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룰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속단할 수 없고, 룰라 후보가 당선될 경우라도 급격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며, 브라질 정부가 IMF의 지원하에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.

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

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